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영길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삼성과 애플, 특히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 두 기업 간의 특허 전쟁이 5년째를 맞고 있다. 이 특허 소송에서 지는 쪽은 아마 천문학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과 이야기의 힘

특허소송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열릴 수 없을까? 한국인도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날이 오려나?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목표 아래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재작년에 결성되었다. 여야(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와 민간인(이광형 KAS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국회의원 64명을 포함한 추진위원과 각 분야의 운영위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능한 극적인 구성을 통해 전달하면 주효할 것이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면 그 상풍이나 기술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특허의 독창성을 담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지금까지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은 따로국밥이었다. 문학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종교칼럼



양홍 광주 서광교회 협동목사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서 한 점을 택해 그 전을 묵은 해라고 하고 그 후를 새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 번씩 송구영신의 뜻 깊은 순간을 갖게 한 것은 분명히 인류의 정신적 수간 중 하나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는 한 골짜기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뒤편에 섰을 때 조카...

똥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리라”고 약속한 땅은 후손의 영원한 복지가 됐고, 자손은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어떤 곳까지 가려면 ‘눈에는 꿈, 귀에는 소리, 입에는 노래, 손에는 칼’을 가지라 했습니다. 차원 높은 꿈을 갖으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은 칼(실력)이 없는 꿈은 공상이 되고, 입에 노래가 없는 꿈은 무거운 짐이 되고, 귀에 소리(깊이요, 생명이신)를 갖지 못한 꿈은 차원 높은 꿈이 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고



박광석 전 광주시 문화예술과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의 장이다. 아시아 최대규모의 시설인 문화전당은 문화국가로 전진하는 미래 한국의 비전이 담긴 상징적 가치의 산물이다. 전세계가 문화국가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적 조류에 맞설 문화한국의 꿈이 이국 광주의 한복판에 자리하게 된 것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광주, 진정한 ‘문화수도’ 되려면

마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사랑과 관심을 구하면, 그 길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참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문화전당은 아시아적 가치와 정신을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문화발전소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현대를 지나면서 열강의 식민지수탈을 기억하는 아시아 각 민족과 그 구성원에 의해 생성된 아시아 문화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문화전당 개관일을 알리는 홍보물이 광주 시가의 가로등에 붙걸렸었다. 안타깝게도 해냄이를 한 후에도 여전히 걸려 있는 홍보물을 보고 문화전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시들어 간다. 철차나 빛 바랜 홍보물과 같은 이미지를 시민에게 선사하는 전당이라면 시민의 애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은 문화적 권리를 가진 문화주권자로서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창작·유통·향유라는 생태환경에서 가장 정점에 있다....

에게 소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관객의 감채를 창작의 동기로 삼고 살아가는 예술가에게 이러한 시민의 주체적 활동은 몇 배 큰 에너지원이 된다. 공공기관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의 관점에서 마중물 정책을 펼칠 때, 그 향유 주체인 시민 역시 문화예술에 관한 자신의 끼를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나가야 한다. 전통시대에 광주예술의 발전 역시 의로운 호남의 정신에 기초한 예술혼의 발전으로 빚어낸 산물이었다. 호남의 중심도시로서 광주에 예술가들이 모이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전개했던 것도 동시대를 사는 시민의 삶과 무관하지 않았다. 오...

社說 ‘광주 가전산업 육성’ 삼성의 약속 지켜지길

社說 ‘광주 가전산업 육성’ 삼성의 약속 지켜지길

삼성전자가 광주 사업장 일부 생산라인의 베트남 이전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우려에 대해 ‘광주를 프리미엄 가전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응답’했다. 설비를 해외로 옮기기로 함에 따라 광주 지역 경제계가 크게 술렁이자 대안으로 내놓은 제안이다. 삼성전자의 서병삼 부사장(생활가전사업 부장)은 최근 윤장현 시장과 만나 “광주를 프리미엄 가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냉장고를 세탁기보다 훨씬 가격이 높은 ‘무풍 에어컨’과 ‘패밀리리브 냉장고’를 만드는 데 투자해 지역경제의 손실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공장에서는 일반냉장고 생산 3개 라인을 통해 김치냉장고 등을 만들어 왔으나 이 가운데 하나를 베트남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광주 지역 세탁기 라인 1개를 지난해 연말 중단한 사실까지 밝혀진 가운데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해...

지는 등 지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바 있다. 이처럼 생산설비 축소에 따라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번엔 내놓은 삼성 측의 대안은 주목할 만하다. 삼성은 이밖에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기술지도 강화, 상생펀드 확대 조성, 사내 생산 중인 부품의 외주 생산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높은 신뢰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책임이 막중한 삼성이 발표한 프리미엄 가전 육성 계획이 끝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어려움 국면을 호전시키기 위한 눈가림용 대책이라면 기업 이미지 추락과 함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삼성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예회관 기대된다

광주문예회관이 올해 찾아가는 예술단을 활성화하는 등 시민 밀착형 공연장을 표방하고 나섰다. 그동안 외부 단체의 공연을 선보이는 데 그쳤던 ‘대관공연장’의 오명을 벗고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끌어올리는 구심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예회관이 최근 확정·발표한 시립교향악단 등 산하 7개 예술단체들의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주 공연장인 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을 벗어나 5개 자치구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가족 음악회’ 신설이 눈에 띈다. 모든 연령층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친숙한 레퍼토리로 잘 계획이라 한다. 기존의 ‘찾아가는 예술단’ 역시 야외 공연을 늘리는 등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전당 주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당산 개방과 연계한 산사 음악회도 준비 중이다. 복지시시·교도소·병원·학교 등 현장에서...

진행했던 공연 역시 올해도 계속된다. 사실 이번 문예회관의 변신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광주를 대표하는 공연장이지만 그동안 전문성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날로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국내 유명 공연장들이 관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1년치 공연 라인업을 미리 선보이는 시너지를 실시하는 한편 예술 교육에 주력하는데 반해, 광주문예회관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비켜져 있었다. 올해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콘텐츠가 있어도 시민들이 향유하지 못한다면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근래 국내외의 문화 예술기관들이 시민들의 미적 안목을 높이는 예술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시민들 곁으로 더욱 다가가고자 하는 문예회관의 노력이 올해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無等鼓 제스트 두 잇 팀 켈러는 그래서 권고한다. “결인을 향한 우리의 자선 행위가 때때로 속고 낭비되고 배반당한다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듯이, 상대의 처치를 재며 반응(reaction)하기보다는 우선 행동하라(act!)”고 신약성서에 나온 이야기처럼, 아무리 적대 관계인 민족이 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이다. 작은 금액이나마 동전 혹은 지폐를 꺼내들 때도 있지만, 애써 모른 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돈을 줬던 안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도움을 주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 하지만 결정에 참고할 만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로 꼽히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는 “결인을...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publication info, subscription rates, and contact detail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